

생산비 절감, 소비확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정리/이인수 기자



▲ 장대석 (쌍용농장) · 사장

들되어 그야말로 격동의 한해를 연상케 하였다.

계란이나 닭고기, 병아리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가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쉽게 해석할 수도 있다. 계란가격을 놓고 일년간 치열한 싸움을 벌인 채란업계에 대한 금년 한해의 경기를 정리하고자 현재 경기도 안성에서 직립식계사를 도입시켜 산란계 7만3천여수를 경영해 오고 있는 쌍용농장 장대석 사장을 만나 계란가격에 대한 최근동향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육계와 마찬가지로 채란업에 있어서도 폭락과 폭등이 거듭되어 금년 한해동안 난가

“**닭**의 해”인 계유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그간 국내양계산업을 돌아 보면 폭등과 폭락이 거

변동 회수를 보면 연중 40회 이상 변동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도 계란가격은 월평균 특란 10개를 기준으로 하여 1월, 9월에는 각각 604원, 643원 가격이 형성되어 강세를 보였으며, 2월, 3월, 7월, 8월에는 500원대에 비교적 안정된 가격이 형성된 반면에 4월, 5월, 6월에는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400원대가 근3개월간 지속되었다. 특히 5월에는 특란가격이 448원까지 하락되어 국내 채란인들에게 주름살만 하나더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장대석 사장은 웃으면서 금년 한해동안 난가변동에 대한 애석함을 털어놓았다.

'92년 및 '93년도 계란가격은 그림1에서 보는바와 같이 '92년 대비 '93년도 평균난가가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가격이 하락되었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그만큼 증가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거에 비해 각 사육농가에서는 정확한 목표설정과 아울러 세심한 사양관리, 질병예방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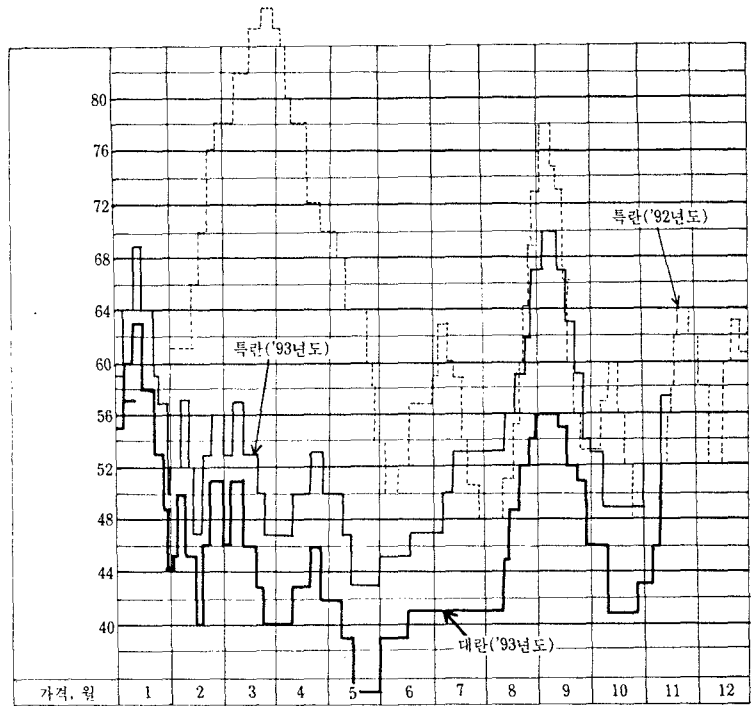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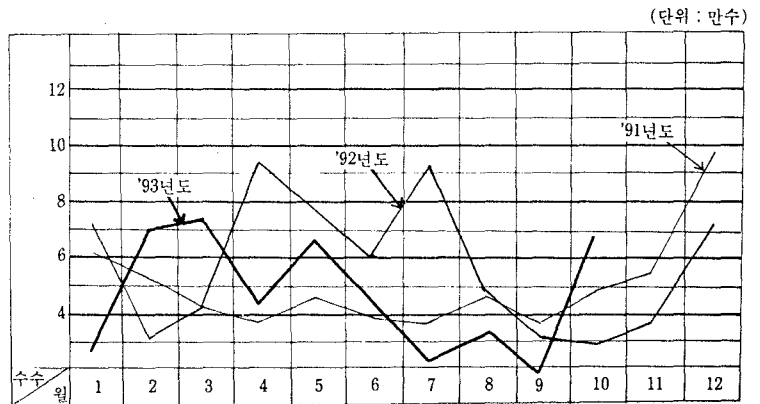


그림1. '92 및 '93년도 계란가격(특란, 대란)

하여 생산성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생산과잉으로 인해 제값을 받지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각종 축산 정책의 일환으로 시설개선 자금이 투자되어지고 있는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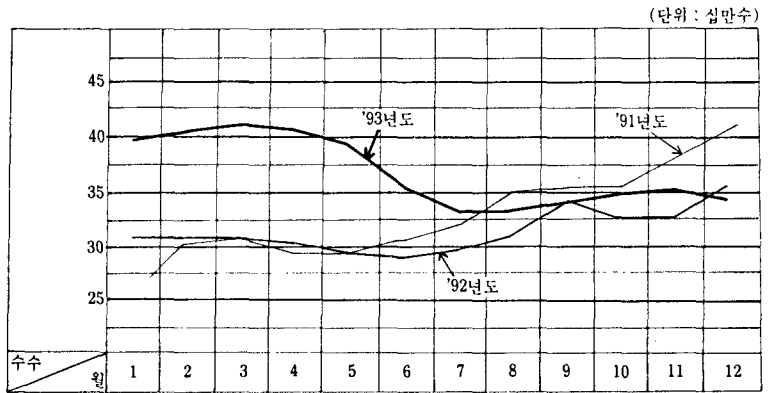
표1. 산란용 P.S입식현황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유통의 변화없이 자칫 잘못하면 생산과잉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장사장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지원시 신축계사증설보다는 말그대로 시설개선 사업으로 유도하여 더이상 신계사가 증축되지 않은 방향으로 유도하여 생산량을 조절하는 한편 유통체계를 정비하여 소비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란가격을 예상하여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산란용 P.S입식 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 추정과 둘째 사료생산실적과 아울러 당시

표2.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



질병문제를 고려해 볼때 미리 예견된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개 산란용 P.S입식에서 부터 부화, 실용계 생산, 육성 과정을 거쳐 계란이 본격 생산되어지기 까지 약 18개월이

란 기간의 통계자료를 분석해야 하는데 '92년도 상반기 산란P.S입식현황에 따라 '93년도 하반기 계란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게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92년도 산란P.S 입식현황을 살펴보면 약 67만7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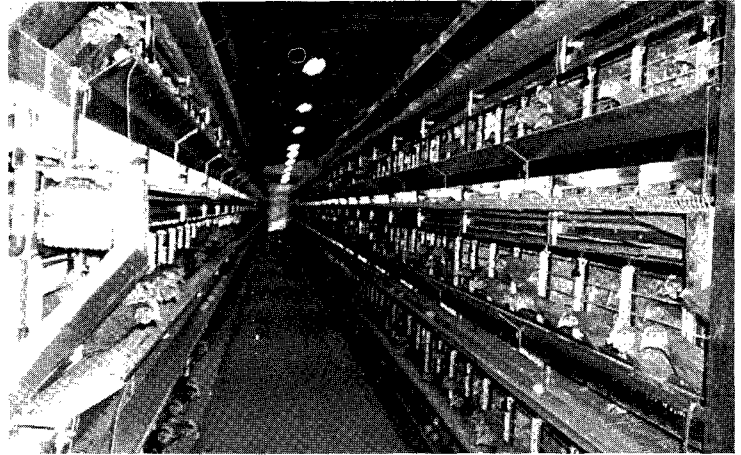
표3. 산란사료 생산실적(M/T)

구분 월	1992					1993				
	초생추	중추	대추	계	산란사료	초생추	중추	대추	계	산란사료
1월	5,859	15,449	11,817	33,125	140,283	4,729	15,516	9,895	30,140	139,242
2월	4,815	13,453	9,671	27,939	125,005	5,264	13,578	9,068	27,910	131,553
3월	6,408	13,376	8,709	28,493	135,067	6,905	15,481	8,871	31,257	146,942
4월	7,123	15,391	9,392	31,906	137,930	7,310	16,368	8,322	32,500	142,254
5월	6,130	16,763	12,268	35,161	136,231	6,340	17,495	10,578	34,413	138,255
6월	6,213	16,472	15,856	38,541	126,990	4,915	15,388	13,273	33,576	128,313
7월	5,890	14,392	14,501	34,783	124,666	4,494	13,188	11,946	29,628	133,412
8월	5,790	14,124	11,684	31,598	125,110	4,987	12,027	9,106	26,120	130,819
9월	5,756	15,417	11,721	32,894	127,397	6,075	13,300	7,983	27,358	139,023
10월	6,324	17,472	12,903	36,699	137,158	6,164	15,503	9,676	31,343	128,515
11월	5,923	17,542	11,313	34,778	134,948					
12월	6,046	19,411	11,770	37,227	155,721					
계	72,277	189,262	141,605	403,140	1,606,506					

정도가 입식되어 '91년 대비 12.2%가 증가하였고, '92년도 상반기에는 대략 37만8천수 정도가 입식되어져 '93년 상반기 대비 12.8%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일생산의 불씨가 미리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94년도 하반기 계란가격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도 있다.

이와같은 수치는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93년도 상반기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전년동기간에 비해 매일 78만수 내지 114만여수가 증가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사료생산실적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면 '93년도 상반기 초생추사료는 전년동기에 비해 3% 감소, 중추사료는 3.1% 증가, 대추사료는 11.4% 감소하였으며, 이는 향후 짧게는 2주후 길게는 4개월후 계란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계란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산란사료는 전년대비 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측면에서 살펴보면 금년에는 여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특히 닭류코싸이토 준병이 극심한 한해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발병된 지역을 보면 경남을 비롯하여 충남, 전북, 전남지역 일대에 총5만6천여수가 감염되어 30~60%가 발병되었고, 20~30%의 산란저하와 1~5%의 폐사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 외 일부지역에서도 IBD, ND, IB 발생도 없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란용P.S입식현황을 근거로 하여 산란실용계 생산잠재력 추정과 사료생산실적, 질병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계유년 한해”를 되돌아 본다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94년도 계란

가격도 나름대로 전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가격이 좋고 나쁨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현재 흐름으로 볼때 채란계산업을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생산자는 생산비 절감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깨끗하고 신선하다는 위생적인 개념전환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거리감 없이 접근해 간다면 향후 채란계 산업은 그다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계유년의 채란업을 정리하여 주었다. **양재**

